

명실공히 배움의 집으로

2015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훌륭히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과학기술전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미흡한 점들도 짚어주시고 그 해결방도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잠간이라도 쉬실것을 말씀올리는 일군들의 청도 마다하시고 2층에 있는 기초과학관으로 걸음을 옮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기초과학관이 과학기술전당의 사명에 맞지 않게 전시장처럼 꾸려진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과학기술전당내부를 꾸려놓은것을 보면 전자열람구역보다 전시구역이 더 많다고, 과학기술전당은 철두철미 전시품을 구경하러 오는 전시장같은 건물이 아니라 새 과학기술을 습득하러 오는 배움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과학기술전당이 그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명실공히 배움의 전당으로 되기를 바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절절한 당부였다.